

공기산업 융복합단지·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반영 총력

광주·전남 정부 예산안 국비 미반영 사업 뭐가 있나

시,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등 24개 사업 1686억원 요청
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70여개 사업 5000억원 확보 계획

내년도 예산 확보전에 뛰어든 광주시와 전남도는 타 지역 대비 낙후한 지역여건 등을 앞세워 치열한 예산 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중 상당수가 정부 예산안 조차도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흘러가는 상황은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의원들도 예산만큼은 여·야나 소속 정당을 떠나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올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내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초선의원이거나, 예산결정에 깊게 관여하는 예결위원이 아니라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에선 예결위원은 양향자 의원 단 한명 뿐이고, 송갑석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초선의원이다. 전남도 여건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광주를 방문한 국회의원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역의 낙후성 등을 설명하고 예산 협조를 요청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연일 광주·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최소 24개 사업 1686억원은 반영돼야
광주시는 민주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부지정 상생형지역일자리 제1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액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예산으로 20억원의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또 공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공기산업 지능형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구축 등을 위해 국비 95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인 '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친환경공기산업)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 뒤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창업 지원 센터가 광주역 배후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광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설설계비 10억원 요청했다. 또 데이터기반 디지털 페어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56억), AI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 등 플랫폼 구축(30억), 광주 제2순환도로 태양광구축 실증사업(20억), AI집적단지 3대 주력산업분야 AI확용용 데이터센터 개발사업(100억), 그래픽 맵 기반 시민참여

형 스마트도시 데이터 구축(40억), 자기응용과학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10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 외에도 국립광주국악원 유치(20억),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15억), 광주순천면역시험장 신설(20억)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사업 첫째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 70여개 사업 5000억 추가 반영 절실 = 전남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에서 누락됐거나 삭감 반영된 70여개 사업에서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사업비 규모로는 5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 증액 및 신규 반영 주요 사업으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사업,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천사대교 보행로 설치 등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354억원, 내년도 권역은 150억원이지만, 정부안에는 20억원만 반영됐다. 경전선 고속철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조7703억원 가운데 전남도 권역은 1134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187억원만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비 30억원, 경전선 고속철 건설사업비 947억원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민주당과 국회의원 측에 건의하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내년도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 167억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사업은 광양항 인근 세종산단 1단계 부지 33만㎡를 매입해 배후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존 배후단지 기업 입주 완료로 부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990억원 가운데 1단계 부지 매입비 228억원을 국회 심의에서 반영해달라고 여의도에 건의하고 있다.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사업의 경우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4선식(5만t급 3선식, 2만t급 1선식)을 구축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5940억원 가운데 설계비 등 내년도 사업비 95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라고 건의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軍) 공항 이전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필요하면 시·도민 합동 공론화 해야”...광주시·전남도 합의 촉구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공청회
내달 10일까지 시민 여론조사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가 원만한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민간공항 및 군 공항 이전 공청회'에서 "광주는 군 공항 이전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며 광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018년 합의문에서 민간공항은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기고 전남은 광주 군 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고 민간공항 이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민권익위 주도로 진행되는 공항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장에게 권고안의 형태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다"며 "공항 문제는 광주만이 아닌 전남, 국방부, 국토교통부와도 관련된 문제로서 권고안을 내면 이 시장은 해당 기관과 협의해 최종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전남의 시군도 주민에게 군 공항 이전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론화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양쪽이 여론조사에서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그대로 (협약대로) 시행하고, 다르게 나오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합동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로 나선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시와 전남도가 동시에 추진하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의 모든 구청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군 공항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대책위원장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가 크며 광주시와 전남도에 이전 논의를 촉구했다.

시민권익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용섭 시장에게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안 대결로 번진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도 국회의원 간 '법안 대결'로 번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전남지역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전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 두 법안이 충돌할 우려도 날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 사실상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 힘들어 군공항 이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

광주 이용빈 의원,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남 서삼석 의원, 주민 동의 강화 법안 발의

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대양어'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대양어'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부지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주변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팥암공원 앞 위치